“청년들과 지역사회의 내일 밝게 비추겠다”

●이정윤 제44대 북광주 청년회의소 회장

취임 6개월차…선한 영향력 전파하는 활동 지속

나눔·봉사 통한 역량·리더십 개발 ‘선순환’ 눈길

“지역사회의 내일이 오늘보다 밝아질 수 있도록 북광주 청년회의소 회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37) 북광주 청년회의소(북광주 JC) 제44대 회장은 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든 4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청년세대 역량 개발과 청년활동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1980년 3월28일 설립된 북광주 청년회의소는 지도 역량·지역사회·사업능력 개발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단체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꾸준히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청년들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의 구상에서다.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연탄을 나누는 봉사와 지역 내 꿈나무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의 밤 등은 북광주 청년회의소의 대표적인 공헌활동이다.

올해는 대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나눔과 봉사활동 외에도 북광주 청년회의소는 최근 발생하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이정윤 회장과 청년회의소 회원들은 광주 북구 본촌초등학교에서 ‘아동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대처법을 안내했다.

또 어두울 때 혼자 길을 걸을 경우 밝은 곳으로 다닐 것을 강조하며 부득이하게 인적이 드문 곳을 갈 땐 플래쉬를 꼭 켜고 손에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라고 교육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호루라기와 손전등을 나눠줬다.

이 밖에도 북광주 청년회의소는 해가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역민이 인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세먼지신호등’ 기탁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마치는 데로 오는 7월 기탁받은 신호등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윤 회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거닐고, 시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역 내 청년단체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여러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스스로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트레이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내일이 오늘보다 밝아질 수 있도록 북광주 청년회의소 회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전남대 ‘용봉인영예대상’에 김경천·박승현씨

김경천

박승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는 4일 “‘2023년 제27회 용봉인영예대상’ 수상자로 김경천 전 국회의원과 박승현 ㈜영진종합건설 회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경천 전 국회의원은 1970년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재학시절 학보사 기자, 학교방송 CUB 초대실장을 맡아 교가와 용봉의 노래 보급에 힘썼다. 광주YWCA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제16대 국회의원(광주 동구)에 당선돼 지역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박승현 회장은 1977년 전남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영진종합건설을 창업해 대표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5시 전남대 개교 71주년 기념식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다이 기자

전남대병원 주성필·류한승 교수 ‘다인학술상’

주성필

류한승

전남대학교병원은 “신경외과 주성필 교수와 권역외상센터 류한승 교수가 최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30차 대한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연제로 선정돼 다인학술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 교수와 류 교수는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환자에서 급성뇌경막하 출혈의 비침습적 수술치료’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선정됐다. /오복 기자

광주매일신문, 기린아지역아동센터 NIE 순회교육

지역신문 발전기금 미디어교육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2일 광주 남구 기린아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만들기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인터뷰 방법, 6하 원칙에 따라 기사쓰기, 사진 활용 신문 편집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졌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하율(방림초 4)·임대윤(방림초 4)·윤호영(방림초 3) 학생은 교재 속 예제 기사를 6하 원칙으로 분석해 보면서 신문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희중 기자

한국사진문예진흥회, 순천만정원박람회장서 촬영회

사진을 사랑하는 모임인 한국사진문화예술진흥회가 4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정기 촬영회를 가졌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등 3년4개월 만에 모든 방역 규제가 풀린 이후 떠난 이날 사진 여행에는 30명의 회원들이 참여,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회원들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장에서 열대 나무를 비롯해 500여종의 식물로 가득 차고 15m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의 절경을 이룬 ‘국가정원식물원’과 다채로운 정원 작품들이 전시된 ‘시크릿가든’ 등 평소 보기 힘든 볼거리를 렌즈에 투영했다.

카메라를 들쳐 맨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사진을 통해 오랜만에 온전한 자유와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김재호 회장은 “긴장의 연속인 삶속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뜻 깊은 출사였다”며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 회원들의 얼굴에 함박웃음 꽃이 피어나 즐거움이 배가됐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시상…안전문화 정착 기대

전남도는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일 도청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제5회 전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시상하고 올 여름 폭우·폭염 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시상식에선 공공기관·단체, 개인, 시·군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도민, 지자체, 단체 등에 3개씩 9개의 상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공공기관·단체 부문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위해 힘쓴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지역 주민에게 재난안전교육, 안전지킴이 사업을 펼친 강진군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센터, 노란전신주 및 옐로카펫 설치 사업으로 학생 통학로 안전 사업을 추진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가 받았다.

개인 부문에선 코로나19 방역 및 홍보활동을 펼친 김혜라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 사무국장과 화재 안전교육 전문가인 하강훈 순천제일대 교수, 광양시 범죄 예방 및 교통 안전지도 봉사활동을 펼친 조성태 포스코 광양제철소 과장이 차지했다.

시·군 부문에서는 보성군, 광양시, 여수시가 상을 받았다. /김재정 기자

무안군체육회, 지역 아동시설에 과자 141박스 기탁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체육회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과자 141박스를 기탁받았다”고 4일 밝혔다.

류춘오 민선 2기 회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자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작지만 이번 기부로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무안군체육회는 관내 32개의 체육단체가 정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육시설 확보와 전국단위 대회 유치 등으로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무안군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무안군의 소전원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전달됐다./무안=김상호 기자

무등산권 국립공원, 취약계층 ‘숲 속 결혼식’ 진행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지구 잔디광장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취약계층 부부 4쌍을 대상으로 ‘친환경 숲 속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무등산권 국립공원 3개 기관(무등산국립공원,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무등산생태탐방원)이 함께 추진한 이번 결혼식은 ESG 경영기업인 ‘HD현대 1% 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야외 결혼식, 친환경 답례품, 지역 숙박이 포함된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전액 무상 제공했다. 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지부는 결혼

앨범 및 영상 제작, 광주여대 미용과학부는 신혼부부에게 웨딩미용 일체를 후원했으며 광주지방보훈청과 광주보훈병원은 총 200만원 상당의 혼수품을 전달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숭일고, ‘마음 치유 In Nature’ 프로그램 호응

광주숭일고등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은 “지난 2일 박선영 강사를 초청, ‘마음 치유 In Nature’ 학교 자율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큰 호응이 있었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옹기 수반 정원 꾸미기’가, 솔리언(또래상담 동아리)을 대상으로는 ‘다육 플랜테리어’와 ‘에코백 냅킨 아트 꾸미기’가 각각 진행됐다.

옹기 수반 정원 꾸미기는 식물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즐거움을 느껴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업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향후 반려 식물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 교직원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이 기자

목포교도소, 현충공원 충혼탑 참배

목포교도소는 “지난 1일 호국보훈의 달 및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목포 현충공원을 방문,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목포교도소장을 비롯한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교도관 등의 넋을 추모했다.

서호성 목포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6·25 전쟁 당시 수용자를 보호하고 기관 방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교도관들의 애국심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경찰, 녹색어머니회 간담회 개최

해남경찰서는 지난 1일 경찰서장,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임원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해남 녹색어머니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신임 녹색어머니 연합회장으로 위촉된 전옥경 회장은 “해남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정원 해남서장은 “올해 해남군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